

한국갤럽 Gallup Report 2018/12/11

2018년 올해를 빛낸 스포츠선수

한국갤럽은 2007년부터 매년 말 그해를 빛낸 각 분야 '올해의 인물'을 발표해 왔는데요. 올해는 이를 위해 11월 7일부터 30일까지 전국(제주 제외) 만 13세 이상 남녀 1,700명을 면접조사했습니다. 어제 예능방송인/코미디언에 이어 오늘은 스포츠선수를, 이후 영화배우, 탤런트, 대중가수/인기가요 등 분야별 '2018년을 빛낸 인물'을 차례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조사 개요

1. 조사기간: 2018년 11월 7~30일
2. 표본추출: 2단계 층화 집락 무작위 추출-표본 지점 내 성/연령별 할당
→ (참고) [한국갤럽 옴니버스 조사 표본설계 보고서](#)
3. 응답방식: 면접조사원 인터뷰
4. 조사대상: 전국(제주 제외) 만 13세 이상 남녀 1,700명
5. 표본오차: $\pm 2.4\%$ 포인트(95% 신뢰수준)
6. 응답률: 26% (총 접촉 6,416명 중 1,700명 응답 완료)
7.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주요 결과

- 2018년 올해를 빛낸 스포츠선수: 손흥민 2년 연속 1위
- 류현진, 조현우, 황의조, 김은정 2~5위
- 최고의 스포츠 스타 김연아-박지성 빈자리 채울 주자는?
- 류현진·황의조는 상대적으로 남성, 김은정은 여성, 이승우는 10대에서 인기 높아

2018년 올해를 빛낸 스포츠선수: 손흥민 2년 연속 1위

- 류현진, 조현우, 황의조, 김은정 2~5위

한국갤럽이 2018년 11월 7일부터 30일까지 전국(제주 제외)의 만 13세 이상 남녀 1,700명을 대상으로 올 한 해 가장 뛰어난 활약을 한 스포츠선수를 두 명까지 묻은 결과(자유응답), ‘현역 아시아 최고의 축구선수’ **손흥민**이 63.3%의 압도적 지지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손흥민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강팀 토트넘 홋스퍼 FC의 핵심 멤버로, 빠른 돌파력과 양발을 자유자재로 한 강력한 슈팅을 지닌 선수다.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나선 러시아월드컵에서 당시 세계 랭킹 1위인 독일과의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고, 와일드카드로 출전한 아시안게임에서는 팀의 금메달 획득에 기여했다. 소속 팀 복귀 후 현재 절정의 기량을 과시하며 최근 리그 3호, 유럽진출 100호골을 기록 중이다.

2위는 LA 다저스의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19.2%)이다. 2015년 어깨 수술로 인한 2년 공백 후 작년에 성공적으로 복귀, 24경기에 선발로 나와 5승 9패를 기록했다. 올해는 더욱 안정적인 피칭으로 15경기에 나서 7승 3패 평균 자책점 1.97의 준수한 성적을 기록했다. 특히 포스트시즌에서는 팀의 에이스인 클레이튼 커쇼와 원투펀치를 이루며 LA 다저스를 2년 연속 월드시리즈에 진출시키는 맹활약을 했다. 류현진은 2013년 올해를 빛낸 스포츠선수 1위를 기록했고, 부상에서 복귀한 작년에는 3위에 올랐다.

3위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문장 **조현우**(8.8%)다. 2013년 대구 FC에 입단해 일명 ‘대해아’로 불리는 조현우는 러시아월드컵 조별 예선에서 페널티킥을 제외한 14개 유효슈팅 중 13개를 막아내는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월드컵을 통해 전세계가 주목하는 스타 대열에 올랐고, 조별 예선 베스트 11에도 선정됐다. 와일드카드로 출전한 아시안게임에서는 부상을 극복하고 안정적 경기력으로 대한민국 우승에 이바지했다.

4위는 축구 국가대표팀의 믿음직한 공격수 **황의조**(8.4%)다. 올해 아시안게임에 손흥민, 조현우와 함께 와일드카드로 합류했다. 선발 과정에 논란이 있었지만, 해트트릭 2회를 포함해 7경기에서 9골을 퍼부으며 대한민국 우승의 일등공신이 됐다. 2013년 프로 입단 후 2017년까지 성남 FC를 대표하는 선수였고, 현재는 J리그 감바 오사카의 에이스다. 올해 정규시즌에서는 컵대회 포함 33경기 21골로 J리그 득점 3위, 11월·12월 월간 MVP로 선정되기도 했다.

5위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컬링 여자 종목에서 ‘팀 킴’을 이끈 **김은정**(7.9%)이다. 경상북도 의성 출신인 김은정, 김영미, 김경애, 김선영과 서울 출신 유망주 김초희로 구성된 경북체육회 컬링팀의 스킵(주장)이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강호들을 제치고 예선 1위, 준결승에서 일본에 승리하며 은메달을 획득했다. 평창 올림픽 직후 조사에서 우리 국민 70%가 흥미롭게 본 종목(2개까지 자유응답)으로 컬링을 꼽았을 정도로 여자 컬링팀은 국내외 폭발적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경기 내내 빨테 안경 아래 포커페이스를 유지한 김은정은 ‘안경 선배’라는 애칭을

얻었다. 최근 호소문과 기자회견을 통해 폭언, 욕설 등 인격 모독과 올림픽 상금을 제대로 배분하지 않은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부회장 등 지도부 가족의 전횡을 폭로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 6위는 축구 국가대표팀에서 열정적 경기력을 선보인 **이승우**(7.8%),
- 7위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뉴캐슬 유나이티드 FC의 ‘패스 마스터’ **기성용**(6.7%),
- 8위는 메이저리그 텍사스 레인저스의 강타자 ‘추추트레인’ **추신수**(5.8%),
- 9위는 은퇴 후에도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피겨 전설’ **김연아**(4.1%),
- 10위는 일본과 미국 프로야구를 거쳐 롯데 자이언츠에서 활약 중인 ‘거포’ **이대호**(4.0%)다.

이외 박지성(3.1%, 축구), 윤성빈(2.3%, 스켈레톤), 정현(2.0%, 테니스), 김연경(1.8%, 배구), 박찬호(1.7%, 야구), 이동국(1.7%, 축구), 김영미(1.6%, 컬링), 이상화(1.4%, 스피드스케이팅), 박인비(1.3%, 골프), 구자철(1.2%, 축구)이 20위권에 들었다.

▶ 2018년을 빛낸 스포츠선수 - 상위 10위 (2명까지 자유응답)

순위	이름	%	종목	소속팀
1위	손흥민	63.3	축구	토트넘 홋스퍼 FC
2위	류현진	19.2	야구	LA 다저스
3위	조현우	8.8	축구	대구 FC
4위	황의조	8.4	축구	감바 오사카
5위	김은정	7.9	컬링	경상북도 체육회
6위	이승우	7.8	축구	헬라스 베로나 FC
7위	기성용	6.7	축구	뉴캐슬 유나이티드 FC
8위	추신수	5.8	야구	텍사스 레인저스
9위	김연아	4.1	피겨스케이팅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대사)
10위	이대호	4.0	야구	롯데 자이언츠

질문) 2018년 한 해 동안 가장 한국을 빛낸 스포츠선수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남녀 구분 없이 두 명만 말씀해 주십시오. (2명까지 자유응답)

*2018년 11월 7~30일 전국(제주 제외) 만 13세 이상 1,700명 면접조사. 한국갤럽 www.gallup.co.kr

최고의 스포츠 스타 김연아-박지성 빈자리 채울 주자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김연아-박지성-박태환이 자리만 바뀌가며 ‘올해의 선수’ 1~3위를 독식했고, 특히 김연아는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을 끝으로 현역 은퇴했음에도 2017년까지 11년간 연속 5위권에 들었다. 이처럼 은퇴 후에도 팬들의 사랑이 끊이지 않는 최고의 스포츠 스타 김연아와 박지성의 빈자리는 이제 손흥민이 든든히 채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손흥민은 2013년 8위로 순위권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고 2014년 5위, 2015년 1위, 2016년 2위, 2017·2018년 1위로 5년 연속 최상위권이다.

▶ 올해를 빛낸 스포츠선수 - 최근 12년간 추이 (% , 2명까지 자유응답)

순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위		김연아(52.0)	김연아(56.1)	김연아(82.8)	박태환(61.6)
2위		박태환(45.4)	박태환(55.4)	박지성(40.7)	김연아(50.0)
3위		박지성(28.8)	박지성(23.9)	박태환(14.5)	박지성(35.6)
4위		이승엽(11.8)	장미란(21.8)	추신수(10.9)	추신수(16.2)
5위		최경주 (5.2)	이승엽(11.5)	박찬호 (9.6)	장미란 (7.7)
순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위	박지성(57.6)	손연재(37.6)	류현진(51.4)	손연재(42.0)	손흥민(24.4)
2위	김연아(55.9)	박태환(29.1)	김연아(35.2)	김연아(33.3)	손연재(17.5)
3위	박태환(26.0)	박지성(23.7)	손연재(24.9)	류현진(29.1)	추신수(16.9)
4위	이대호 (6.5)	김연아(23.0)	박지성(18.8)	박태환(24.5)	김연아(15.1)
5위	박주영 (5.4)	양학선(16.3)	추신수(17.0)	손흥민(12.9)	기성용(13.1)
순위	2016년	2017년	2018년		
1위	손연재(29.8)	손흥민(38.1)	손흥민(63.3)		
2위	손흥민(27.3)	김연아(13.4)	류현진(19.2)		
3위	박인비(16.6)	류현진(12.8)	조현우 (8.8)		
4위	김연아(14.5)	기성용(10.7)	황의조 (8.4)		
5위	박상영 (8.8)	추신수 (9.4)	김은정 (7.9)		

*매년 말 전국(제주 제외) 만 13세 이상 1,700명 면접조사. 한국갤럽 www.gallup.co.kr

류현진·황의조는 상대적으로 남성, 김은정은 여성, 이승우는 10대에서 인기 높아

매년 10위 안은 양대 인기 종목인 축구, 야구 선수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올해도 축구 선수가 5명, 야구 선수가 3명이며 이외 종목 선수로는 컬링의 김은정과 현역 은퇴한 피겨 스케이터 김연아가 포함됐다.

모든 연령대에서 올해 최고 활약 선수로 손흥민을 꼽았고, 특히 10~30대 남성에서는 그 비율이 70%를 넘었다. 류현진·황의조는 상대적으로 남성에서, 김은정은 여성에서 더 많은 지지를 받았고 이승우는 10대에서의 인기가 두드러졌다.

▶ 2018년을 빛낸 스포츠선수 - 성/연령별 (% , 상위 10위, 2명까지 자유응답)

	표본수 (명)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손흥민	류현진	조현우	황의조	김은정	이승우	기성용	추신수	김연아	이대호
전체	1,700	63.3	19.2	8.8	8.4	7.9	7.8	6.7	5.8	4.1	4.0
성 남	845	67	23	8	11	6	7	7	6	4	4
별 여	855	59	15	10	5	10	9	7	6	4	4
연 13~18세	117	64	12	14	7	9	21	4	2	1	1
령 19~29세	275	66	18	13	11	7	15	4	5	2	2
별 30대	270	69	20	12	10	7	7	6	8	3	3
40대	317	67	27	8	9	9	7	8	5	3	3
50대	317	62	17	8	8	8	4	8	6	5	5
60대이상	404	56	17	3	6	8	2	8	6	6	6
남 13~18세	61	73	11	11	10	5	17	4	2	2	
19~29세	145	72	22	13	13	4	13	3	5	1	3
30대	138	71	25	10	15	4	3	7	7	4	3
40대	161	68	30	6	11	8	8	6	7	3	5
50대	160	60	22	7	11	6	3	11	6	1	6
60대이상	181	64	21	4	9	6	2	8	7	2	7
여 13~18세	56	55	13	16	4	14	27	5	3	4	2
19~29세	130	59	13	14	8	9	18	5	6	6	2
30대	132	66	16	15	5	11	12	5	9	4	3
40대	156	65	24	10	7	10	6	9	4	7	2
50대	157	63	13	9	5	9	6	5	6	5	5
60대이상	223	49	13	3	3	9	2	8	5	8	5

질문) 2018년 한 해 동안 가장 한국을 빛낸 스포츠선수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남녀 구분 없이 두 명만 말씀해 주십시오. (2명까지 자유응답)

*2018년 11월 7~30일 전국(제주 제외) 만 13세 이상 1,700명 면접조사. 한국갤럽 www.gallup.co.kr